

헤이리 예술 마을의 식물, 보행자를 위한 다리

## 파주 헤이리 아트 밸리의 꿈 환경과 인간 그리고 예술을 논하다

헤이리 아트 밸리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 예술의 공간이자 일반인들에게는 삶의 휴식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편안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마을을 만들고자 뜻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이곳은 마치 건축물과 그림, 공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커다란 갤러리 같다.

에디터 권희란 사진 양진욱 제공 Heyri communityhouse



조각기 앙옥상의 작품이 걸려 있는 연못 위의 다리. 여유롭고 안락한 느낌을 준다.



1 건축가 차영호 스튜디오. 2 이영진 세계 민속 악기 박물관.  
세계 민속 악기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파주 출판단지를 지나 통일동산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파주 헤이리. 그 안에서도 헤이리 예술 마을은 유명한 건축가들과 영화인, 음악인, 방송인 등이 모여 사는 독특한 곳이다. 이곳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마법의 공간'이 아니라 지난 1997년부터 서서히 준비되어온 문화의 장이다. 당시 한길사의 김언호 대표와 출판인 및 지인 20여 명이 모여 예술 마을 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에 화가, 도예가, 건축가, 화랑 운영자들이 참여하면서 '헤이리 아트 밸리' 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후 2003년까지 아트 밸리에 들어올 수 있는 회원 자격을 제한해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작가, 전문가, 공연장, 또는 화랑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경영해온 전문가 등 370여 명의 회원이 헤이리로 모여들었다. 헤이리 아트 밸리는 순수하게 민간 예술인들이 만든 꿈의 도시다. 이 '꿈의 공간'을 조성하기까지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뒤따랐다. 1997년 7월 토지공사와 서화촌 부지 3만 평에 대한 계약을 했고, 새로운 마을에 대한 마스터플랜 등 건설 계획을 시작했다. 예술인들이 모여 건축을 시작한 터라 미비한 점이 생겼고, 이로 인해 1999년 9월에 좀더 넓고 자연 생태가 비교적 양호한 부지로 이동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999년 12월, 민속 문화 예술타운 부지 15만 2000평에 대한 계약이 이뤄졌고 지금의 헤이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새로운 도시 개념을 선도한다

헤이리 예술 마을은 그저 문화, 예술가들의 만족과 그들만의 자부심을 위해 탄생된 공간이 아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 지역의 새로운 생태 문화 벨트로서의 중심 역할까지 내포한 '생태학적인 공간' 인 것. 또한 남북한의 문화 교류까지 고려한 곳이기도 하다. 한강과 임진강변을 따라 형성된



3

철새 도래지와 북으로는 30여 분 거리의 개성, 남으로는 40여 분 거리의 서울, 그 두 축의 서쪽에는 40여 분 거리의 영종도 국제공항이 있다. 이런 지리적 환경은 통일을 대비한 남북 교류 관계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의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북한의 각종 문화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헤이리 아트 벨리 사무국의 윤성택 홍보팀장은 “헤이리 예술 마을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곳이지요. 예술 마을로 단지 조성을 할 때 일부러 산을 깎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인간의 흔적을 남기자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레 건축물을 시공했습니다. 새와 연못과 수많은 잡초들까지 훼손시키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헤이리 예술 마을의 기본 방침이지요”라며 예술 마을의 가치에 대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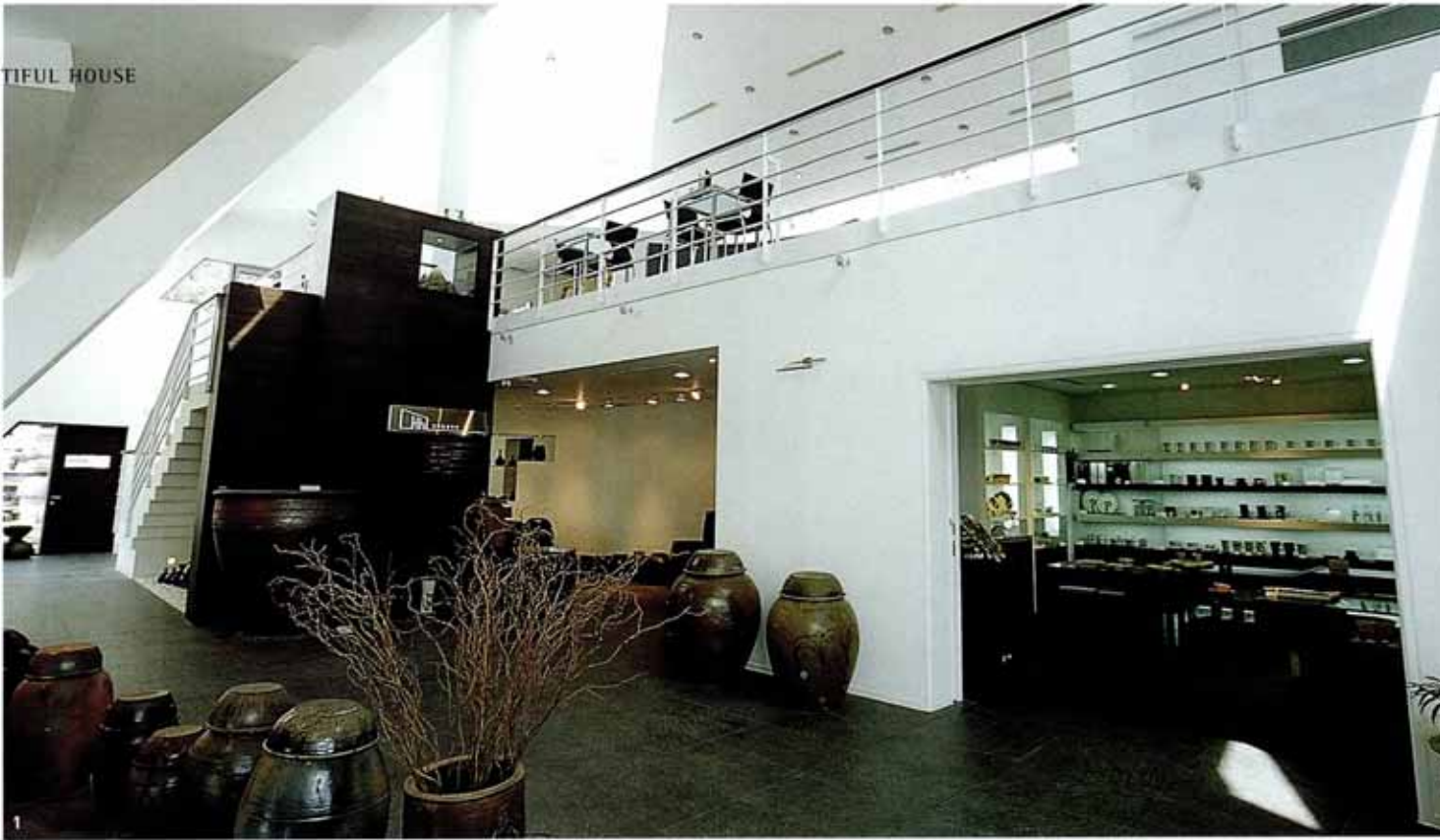
헤이리는 그 밖에 색다른 도시 개념과 건전한 건축 전시장으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는 이미 헤이리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적인 개념으로서 땅 자체가 지니고 있는 구조가 그대로 도시의 구조로 전환되는 느린 체계의 도시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마을 전체가 형태와 공간, 공동체적인 개념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커다란 조형물인 것이다.

예술 마을이 생기면서 헤이리가 새로운 문화 예술의 생산, 전시, 판매, 거주와 함께하는 통합적 개념의 특수한 공동체로 형성돼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아직 예술 마을의 공사가 끝나지 않아 완성된 형태를 띠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페스티벌, 심포지엄, 뉴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등의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미 이곳을 다녀간 방문자도 많다. 이런 기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각 장르별 예술의 실험적인 작가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디지

3 소설가 고정한숙 선생을 기린 기념관으로, 문학 강당과 카페가 있다. 4 한행림 갤러리 전경. 5 도예가 박유나의 거주 공간 '박유나 UNASSC'.



5



1 한향림 갤러리의 1층 도자기 전시 공간. 오른쪽에는 작가들의 도예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침실과 거주 공간이 함께 있는 '정중한 스페이스 이비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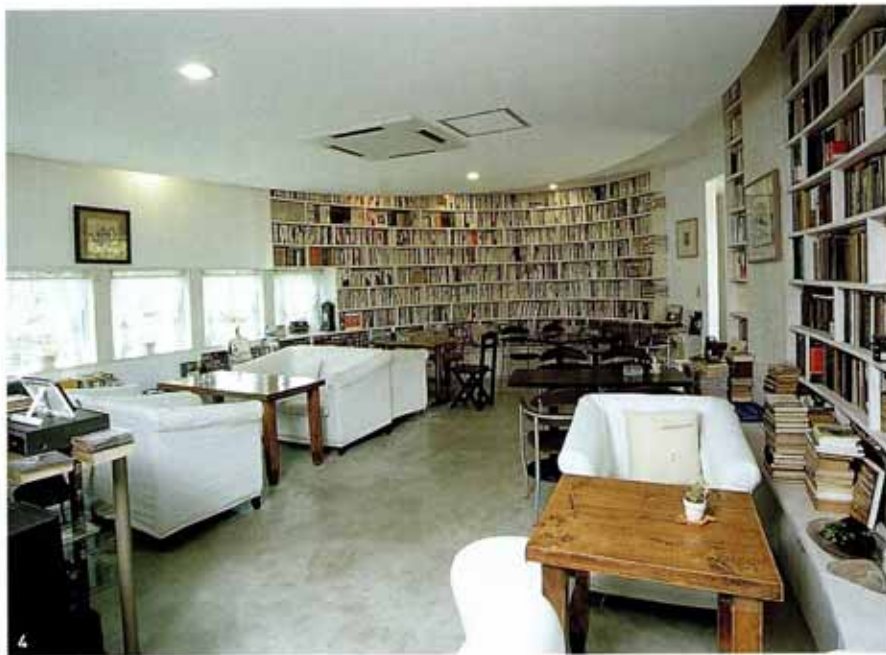
털 문화 시대의 중요한 순수 뉴 미디어 아트, 퓨전,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사이버 아트 등의 작품 또한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창작 행위를 만족하기 위해서 만든 단지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다양한 건축물의 형태를 알려주기 위해 다듬어놓은 곳이지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 심사를 거친 문화 예술인들만 살 수 있죠. 사회적으로 문화 예술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헤이리 예술 마을에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윤성택 홍보팀장의 말처럼, 헤이리 예술 마을은 예술인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예술인들을 위한 창조적 공간이고, 예술인들의 의지대로 마을이 조성되는 곳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코 간과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한국의 모든 대중들에게 문화, 예술적인 혜택을 안겨주고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것이다.

미국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설립 당시부터 유명했던 곳이 아니었다. 미술관이 있는 지역은 과거 불거리도 하나 없는 초라한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이곳에 화가들이 모여 미술관을 건립하자 시민들이 점차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쇼핑가, 서점, 음식점, 숙박 시설 등 많은 상업적인 공간이 생겨났고 초라하기 그지없던 이 마을은 금세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다. 이 사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적인 사업이 그 지역 사회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된 부가가치를 생성시키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다. 헤이리 예술 마을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겐하임의 사례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 공간, 예술적인 창작 활동과 유명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3 도예가 한형림 갤러리의 2층 전시 공간. 4 이종욱 북카페 '반다'. 책과 차, 음악을 편안히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입할 수 있다. 5 정중현 스페이스 아비델의 야외 계단.

로도 이미 이곳을 성공한 도시 개발의 사례가 된 거나마찬가지다.

### 헤이리에 가면 생생한 문화가 있다

헤이리 아트 밸리에는 적잖은 예술인이 모여 산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예인이거나 화가, 건축가, 방송인들이다. 방송인 황인용, 건축가 송효상과 미술 평론가 이주현, 도예가 한형림, 한길사 대표 김인호 씨를 비롯해 강우석, 김영진, 박찬욱 감독과 박노해, 배병우, 오동진, 윤후명, 우경록, 조희문, 정태춘, 천호균 등 다양한 문화 예술인이 헤이리 아트 밸리의 회원이다.

또한 이곳에는 '아트 서비스'라는 영화 촬영 센터가 있어 서울종합촬영소 이후로 영화인들의 발걸음이 잦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영화 <올드보이>의 화제의 장도리 신을 찍었으며, 현재 수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쓰이고 있다.

200여 곳에 이르는 갤러리, 스튜디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음악실 등에서는 각종 회화전과 조각전, 도예전, 퍼포먼스, 음악, 연극, 무용, 전통 예술, 영화 축제 등이 사계절 열리고, 예술가, 문인, 학자, 이론가, 출판인들이 문화와 철학, 사회 과학, 예술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모임도 갖는다. 1999년 5월, '999 헤이리 퍼포먼스', 2000년 '2000헤이리 퍼포먼스', 2001년 '헤이리 단지 조성 기념 공연', 2002년 '헤이리 새해맞이 음악회' '헤이리 건축전 Micropolis', 2003년 '헤이리 노을음악회' '헤이리 페스티벌 2003' '헤이리 건축전 Heyri: Micropolis II', 2004년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초청 음악회 및 대보름맞이 행사' '헤이리 노을음악회' 등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

